

플루리질리언스 리빙랩 보고서

통권 1호, 2025. 12.

개인과 감응리질리언스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오치2동에서
감각하기, 실뜨기, 판짜기



플루리질리언스 리빙랩 보고서

통권 1호, 2025. 12.

개인과 감응리질리언스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오치2동에서 감각하기, 실뜨기, 판짜기

목차

I. 리빙랩 배경과 문제 설정

1. 지역 구도심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2. 커뮤니티 인프라 현황과 구조적 취약성
3. 문제 접근 방식: 기능의 개선이 아니라, 연결의 조건을 묻다

II. 리빙랩 실험 과정

1. 참여자 구성과 실험 기간
2. 사전 조사 및 문제 정의
3. 주민 참여 프로그램 설계
4.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결과와 분석

III. 인문적 연결에 대한 성찰

1. 감각하기: 타인의 존재에 열리는 접촉의 순간
2. 실뜨기: 함께 얽히며 만들어지는 과정
3. 판짜기: 관계를 지속하는 구조적 배치

IV. 결론: 지역 관계 회복의 인문적 조건과 한계

1. 지역의 취약성을 회복하는 인문적 연결의 가능성
2. 관계를 다시 이해하기: 결과가 아닌 조건으로서의 관계
3.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연결 실험의 과제와 전망

V. 참고문헌

플루리질리언스 리빙랩이란?

의미: 공공지식 생산과 사회 회복을 위한 인문리빙랩

플루리질리언스(Pluresilience) 리빙랩은 감응(Ganyin), 소통(Communication), 연대(Solidarity), 공생(Symbiosis), 기억(Memory)의 플루리질리언스 5가치(GCSSM)를 통한 공공지식 생산과 사회 회복을 위한 연구-실천 순환형 플랫폼으로서 '인문리빙랩(Humanities Living Lab)'을 뜻한다.

인문리빙랩은 '연구'와 '실천'의 두 축으로 구성되며, 이 때 두 축은 서로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된다. 연구 축은 현장의 경험과 진술을 해석하고, 가치 갈등과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하며, 윤리적·공공적 기준을 성찰하는 작업에 방점을 둔다. 실천 축은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소규모 실험을 설계·실행하고, 그 결과가 다시 연구 축의 재해석과 재구성으로 환류되도록 만드는 데 방점을 둔다.

방법론: 해석, 성찰, 문헌조사, 참여관찰, 심층면담

통권 1호는 오치2동의 커뮤니티 문제가 삶의 맥락 속(감각·관계·규범의 층위)에서 구성되는 방식을 연구의 1차 대상으로 삼고, 해석과 성찰의 인문학적 연구 방법과 문헌조사, 참여관찰, 심층면담의 질적 연구 방법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운영형식: 실천리빙랩

통권 1호는 연구-실천의 두 축 가운데 실천 축(소규모 실천 개입)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운영된 '실천리빙랩'으로 분류된다.

산출물: 지역관계 회복 원리 도출과 운영 지침 제안

통권 1호는 지역 관계 회복의 원리를 '감각하기-실뜨기-판짜기'의 개념틀로 구조화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인문적 연결을 위한 운영 지침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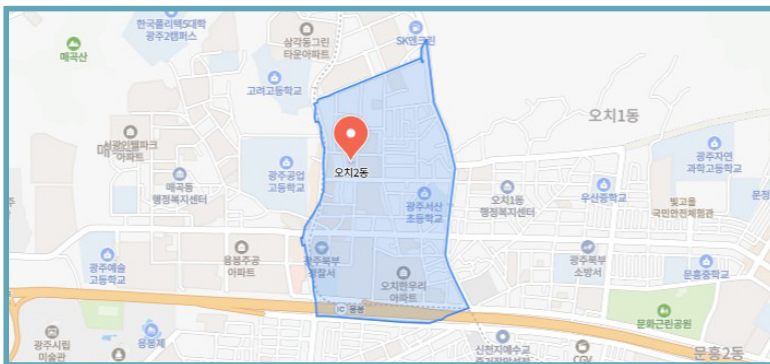
I. 리빙랩 배경과 문제 설정

1. 지역 구도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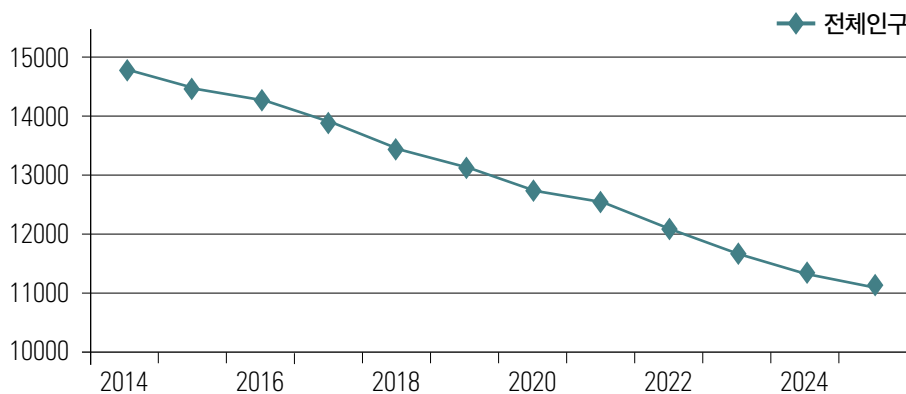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도시 공간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팽창을 거치면서 중심-비중심 간 위계가 고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도심은 기능적·인구적 쇠퇴를 겪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오치2동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치2동은 1990년대 이후 택지 개발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와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형성된 전형적인 도시형 주거 지역이다. 하지만 도시 성장의 주축이 외곽 신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오치2동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공동체 구조와 관계망도 점차 해체되고 있다.

현재 오치2동은 0.75km² 면적에 2025년 11월 기준 총 6,683세대, 11,114명이 거주하고 있다.¹⁾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읍면동별 세대수 및 인구수 현황(2025년 11월 기준)」(<https://jumin.mois.go.kr>)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구역 일반현황(면적)」 자료 재구성. 검색일: 2026.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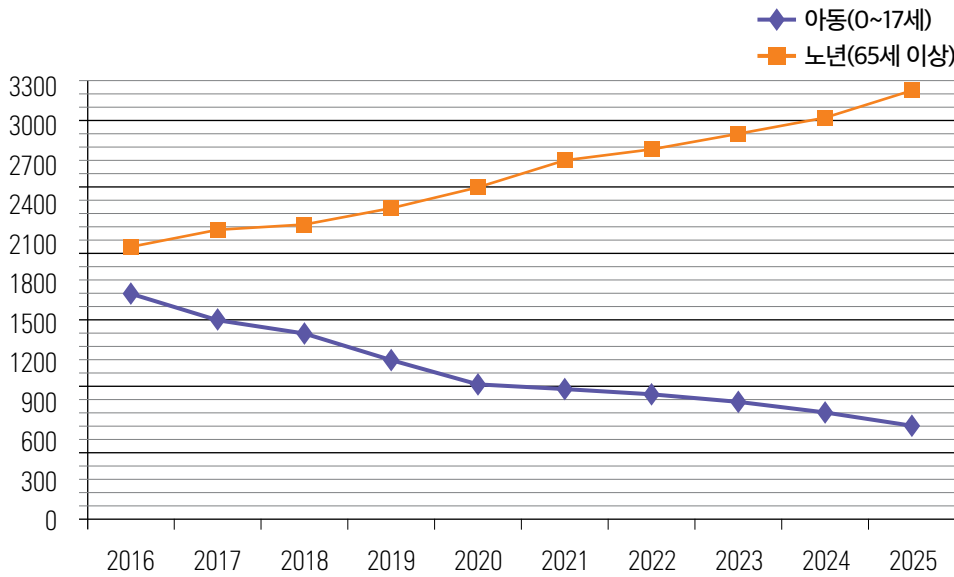


오치2동의 변화는 인구 감소 추이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12년간 2014년 14,780명에서 2025년 11,114명으로 약 25%가 감소하였다.



오치2동 인구 변화 추이 (최근 10년간 11월 기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입주인들의 고령화와 신규 유입 인구의 감소로 지난 12년간 오치2동의 노년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²⁾



오치2동 연령별 인구 비율 변화 (최근 10년간 11월 기준)

오치2동의 인구 변화는 구도심의 물리적 쇠퇴를 넘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커뮤니티 인프라 현황과 구조적 취약성

앞서 살펴본 오치2동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구성과 분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오치2동의 대표적인 주거 단지로는 오치주공아파트(1단지, 7개 동, 1,658세대)와 한우리아파트(2단지, 7개 동, 1,179세대)가 있다. 이들 대단위 공동주택은 지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며, 주민 간 관계망의 형성과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 기반으로 기능한다.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오치동우체국, 광주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등이 있다.³⁾ 교육기관으로는 오치초등학교와 서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⁴⁾ 오치주공아파트 복지관을 비롯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책들이도서관 등 주민 참여 시설이 분포해 있다.⁵⁾

그러나 다양한 공공기관 및 커뮤니티 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일상적인 만남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인프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오치2동 시설 분포 자료에 따르면 오치2동에는 경로당·복지관·요양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2동 연령별 인구 현황(2014-2025),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6. 1. 3.

3) 광주광역시 북구청, 「마을지도 - 오치2동 주요시설 현황」, https://bukgu.gwangju.kr/townMap.es?mid=b10600000000&et_adm_dong=ADMD001, 검색일: 2026. 1. 3.

4) 2025년 현재 오치초등학교는 학생 141명(9개 학급), 서산초등학교는 학생 244명(14개 학급)이 재적 중이다. 교육부, 「학교알리미」, 오치초등학교·서산초등학교 학교 현황(2025학년도), <https://www.schoolinfo.go.kr>, 검색일: 2026. 1. 3.

5)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https://gjbukgu.kr>, 검색일: 2025. 4. 5.;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통합포털」, 책들이도서관 시설 정보, <https://www.smalllibrary.org>, 검색일: 2026. 1. 3.

시설 등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수혜 시설이 다수 분포한 반면,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시설·평생교육시설·실내 체육시설·근린공원 등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⁶⁾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 역시 커뮤니티 관계망 약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상 동선이 ‘집-정류장-대형마트’ 등 필수 공간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골목이나 소규모 상점 등에서 이웃과 우연히 마주치던 일상의 공간들은 활력을 잃게 되었다. 특히 인근 상가의 공실 증가는 야간 거리를 어둡게 만들고 유동인구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3. 문제 접근 방식: 기능의 개선이 아니라, 연결의 조건을 묻다

이상의 논의는 오치2동의 위기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위에서, 관계 형성을 뒷받침하는 생활권 인프라의 취약성과 맞물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구도심 환경의 물리적 쇠퇴를 넘어,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 기반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된다. 즉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 리빙랩은 오치2동의 관계 기반 약화를 특정 기관의 운영 미흡이나 프로그램 부족 등 ‘기능의 결핍’으로 환원하기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환경과 구조 자체가 약화된 ‘연결의 단절’로 파악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현재 지역이 보유한 인프라와 자원을 전제로 흩어진 주민의 일상 경험과 기관의 활동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어떤 연결 조건과 구조를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리빙랩은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고, 짧게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현장에서 구성해 보며, 그 작동 방식과 성립 조건을 검증하는 실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6) 광주광역시 북구청, 「마을지도 - 오치2동 주요시설 현황」, https://bukgu.gwangju.kr/townMap.es?mid=b10600000000&et_adm_dong=ADMD001, 검색일: 2026. 1. 3.

II. 리빙랩 실험 과정

우리의 리빙랩은 다음과 같은 흐름 속에서 오치2동의 관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관찰하고, 탐문하고, 실험하였다.

1. 참여자 구성과 실험 기간

본 리빙랩은 연구팀 ‘관판관’ (이하 관판관)의 주도로 기획되었다. 연구팀은 전남 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대학원 재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다. 팀원들은 대학원 재학과 동시에, 작은도서관 활동가(1인), 마을활동가(2인), 교사(1인),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1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자 10~20년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팀원들은 오치2동의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체험과 구술을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인문학적 성찰에 기반한 인문리빙랩을 설계하였다. 리빙랩의 총 진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이며, 사전 조사와 네트워크 회의, 현장 실험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각 단계는 이전 과정에서 도출된 상황과 한계를 반영하며 유기적으로 조정되었다.

항목	내용
참여 주체	연구팀 ‘관판관’(대학원생 5명), 오치2동 유관 기관 실무자 및 관계자(7명)
대상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2동 일대
진행 기간	2025년 3월 ~ 12월 (약 10개월)
협력 체계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회, 오치권역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책들이도서관
실험 추진 단계	현장 진단(사전 조사) → 관계 오거나이징(네트워크 회의) → 현장 실험(축제)
참여적 특성	연구자와 지역 주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실행하는 거버넌스형 리빙랩

표 1. 리빙랩 개요

2. 사전 조사 및 문제 정의

가. 사전 조사

‘관판관’ 연구팀은 오치2동 관계망과 연결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2025년 4월 한 달간 행정 자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주민자치회, 책들이도서관,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내 주요 거점 시설들을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지역 거점 기관(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자 6명 심층 인터뷰: 행정 관계자 및 현장 간사와의 면담을 통해 오치2동의 공간 운영 현황과 주민들의 실제 이용 패턴을 청취함.

나. 문제 정의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오치2동의 상황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단순화하기 어려웠다. 여러 기관과 공간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조정되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본 리빙랩은 오치2동의 문제를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관계가 어떤 조건 속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실천적 질문으로 정의하였다. 도출된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

오치2동에는 여러 공공기관과 활동이 밀집해 있으나 각 기관이 개별 기능에 치중하면서 상호 연계나 교류를 촉진하는 환경은 미흡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시설을 서비스 이용 공간으로만 인식했을 뿐, 이를 매개로 이웃과 관계를 맺거나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경험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 주민의 일상이 지역 의제로 확장되지 못하는 구조

일상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공적 논의로 전환되는 구조가 취약했다. 개인의 불편이나 필요가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공유할 통로도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주민은 지역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보다 프로그램 수혜자로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

● 관계를 엮고 역할을 매개할 중심점의 부재

기관들 사이에서 관계 회복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연결할 주체는 모호했다. 이로 인해 기관마다 지역을 다르게 해석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이는 주민의 삶과 기관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것을 방해

하는 요인이 되었다.

3. 주민 참여 프로그램 설계

가. 실행 기반 마련과 관계 오거나이징(Organizing)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오치2동의 핵심 문제는 인프라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과 조정의 결핍에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기관이 서로를 다시 인식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만남의 조건’을 조직하는 데 설계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연구팀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파편화된 정보를 하나의 실험 판으로 엮기 위해 내부 워크숍과 전문가 컨설팅을 반복하며, 지역의 물리적·인적 자원을 관계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책돌이도서관, 주민자치회,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각 주체가 인식하는 지역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느슨한 협의의 장’을 제안하였다. 특히 실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⁷⁾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회의와 공동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였다.

7) (사)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
시재생센터 주관 ‘마을공동체 활
성화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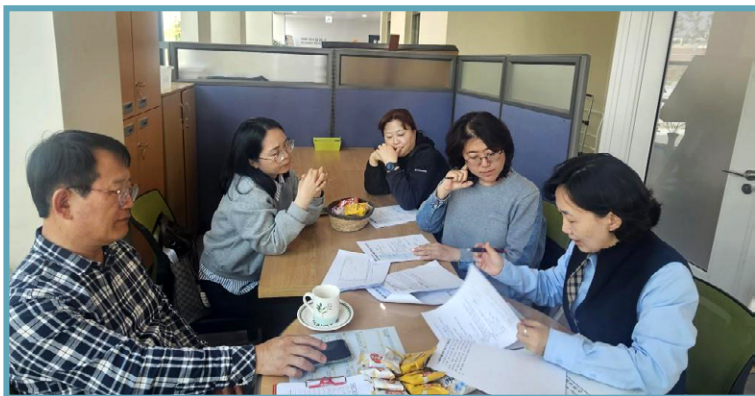


그림 2.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

나. 전략 수립에서 실행 설계까지의 3단계 설계 흐름

연구팀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리빙랩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기반으로 설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특히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와 혁신 워크 툴킷을 활용해 [운영 전략 수립 → 인문적 문제 재정의 → 실행 프로토타입 설계 및 현장 구현]의 흐름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와 조정을 거쳤다.

1) 1단계: 리빙랩 운영 전략 수립 (전략)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여 리빙랩의 구조적 틀과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핵심 파트너 - 책돌이 도서관 - 오치북합커뮤니티센터 - 북구청 마을자치도시재 생센터 - 오치2동 주민자치회 - 오치2동 주민	핵심 활동 - 책돌이도서관 홍보 - 책돌이도서관 인식전환 - 주민공활동공간 제공 핵심 자원 -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 마을주민 - 북합커뮤니티센터 직원	가치제안 -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 구조적 문제 인식 -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전환 - 정보는 문제해결의 열쇠	고객관계 - 오치2동 주민 - 오치주공1단지 주민 - 오치초등학교 취학생 채널 - 북구청 마을자치도시재 생센터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언론기관	고객층 - 오치초등학교 학생 - 오치주공1단지 주민 - 마을가꾸기 주민(꽃가 꾸기) - 마을 상가 운영자
비용구조 - 봉사자의 실질 활동비 보장 - 행사비 마련, 공동작업장 마련		수익원 - 마을자치예산 추가확보 - 수익사업개발		

그림 3. 오치2동 리빙랩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은도서관과 유관 기관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 배분과 운영 체계를 구축함.

2) 2단계: 인문적 관점의 문제 재정의 및 스토리보드 분석 (분석)

전략 수립 후, 활동가들의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며 스토리보드 방식을 통해 문제를 재정의하였다.



그림 4. 인문적 관점의 문제 재정의의 스토리보드 분석 :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진짜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시각화하여 분석하며 연구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는 단계임.

3) 3단계: 1차 네트워크 회의 실행 프로토타입 설계 및 역할 조직화 (실행 설계)

재설정된 가치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1차 네트워크 회의의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구

축(프로토타입)하였다. 이때 핵심은 새로운 자원의 투입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야 끊어진 관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가에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체별 역할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였다.

기관	역할
책돌이도서관	주민 일상과 밀착된 정서적 기반 및 비형식적 만남 제공
오치북합커뮤니티센터	물리적 공간 제공 및 행정 지원을 통한 실험 조건 담보
주민자치회	지역 의제 설정 및 관계 형성 시도의 제도적 확산
연구팀	관계의 기록, 논의 조정, 기관 간 연결(오거나이저)

표 2. 주체별 협력 구조와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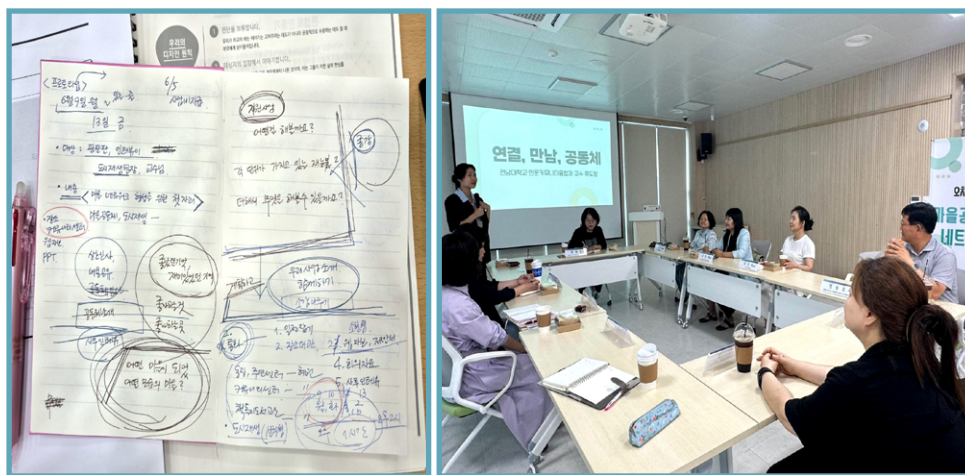


그림 5. 1차 네트워크 회의의 프로토타입 설계(좌) 및 실제 구현 모습(우) : 회의의 순서와 예상 질문 등을 기록한 설계안(좌)과 이를 바탕으로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우).

4.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계기를 만들고, 그 만남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피는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세 차례의 네트워크 회의를 운영하며, 회의 자체가 단순한 협의를 넘어 관계 형성의 조건을 탐색하는 실험의 과정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가. 네트워크 회의 운영

● 1차 회의(2025년 6월 13일 14~16시):

각 기관이 오치2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현재의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

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

● 2차 회의(2025년 7월 15일 14~16시):

오치2동의 인구 구조와 주거 특성 등 지역의 사회적 맥락을 함께 검토하였다. 통계와 현장 데이터가 결합되자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문제 인식이 ‘우리 동네의 현실’로 조정되었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공통의 전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 3차 회의(2025년 8월 19일 13~15시):

3차 회의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작은 축제를 하나의 실험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자신의 여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논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오치2동’ 작은 축제

세 차례의 네트워크 회의를 거쳐 연구팀은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오치2동’ 작은 축제를 진행하였다. 이 축제에서 연구팀은 그동안 논의해 온 협력 내용을 실제 공간에서 시험하고자 하였으며, 주민과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마주치는 장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팀은 축제를 단순한 행사 운영이 아니라,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형성된 협력 관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실험의 장으로 설정하였다.

주민참여 동네 축제의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행사명: 「살맛 나는 우리 동네, 함께라서 좋은 날」
- 일시: 2025년 9월 13일 10:30-12:30 (2시간)
- 장소: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 공간
- 참여 인원: 주민 약 150명



그림 6.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오치2동’ 작은 축제 현장 모습

축제 당일, 주민과 기관 관계자들은 동일한 공간에 모여 각 기관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로 접촉하였다. 주민들은 행사 공간을 오가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기관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기관들은 하나의 장면 안에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 각 기관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서로의 활동을 인식하며 공간을 공유하였고, 주민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기관과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그러나 축제 이후 연구팀과 참여 기관들은 해당 만남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추가적인 회의나 공동 활동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축제에서 형성된 접촉은 이후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축제 이후 일정이나 후속 논의 역시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작은 축제는 하나의 장면으로 남았으며, 이후의 관계 형성 과정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5. 실험 결과와 분석

본 실험은 개별 기관의 기능을 개선하는 지엽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만남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흐름에 주목하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네트워크 회의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이 지역을 인식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회의가 거듭됨에 따라 오치2동의 현안을 공동으로 이해하려는 상호주관적 인식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 간 협력이 즉각적인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서로의 관점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존재론적 탐색의 시간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어진 작은 축제는 그간의 논의가 실제 주민과의 접촉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자리였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기관이 직접 마주치는 계기들이 생성되었고, 주민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접촉은 반복적인 상호작용이나 지속적인 관계로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실험 설계 단계에서 초기 접촉 이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할 제도적·관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 만남은 일회적인 사건에 머물렀으며 관계가 축적되고 확장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실험은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보다, 마을 안에서 관계가 자생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리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탐색적 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연구팀은 이 과정을 통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공동체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Ⅲ. 인문적 연결에 대한 성찰

지역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분석이나 정책적 처방 이전에 ‘관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역을 회복하는 연결은 행정 조직의 정비나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복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공감과 존중에 기초한 ‘인문적 연결’에 있으며, 이는 사람들 사이의 감각과 정서, 필요와 욕구, 삶의 리듬이 서로 부딪히고 조율되는 정성적 시간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문적 연결의 조건을 ‘감각하기’, ‘실뜨기’, ‘관짜기’의 세 가지 범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구분은 현실에서 복잡한 관계 경험을 분절하고 단순화하려는 도식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포착하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관찰과 실천의 단위로서 고안된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리처드 카니(Richard Kearney)와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사유를 참조하였다. 이들의 사유는 리빙랩을 단지 제도나 기능 개선을 위한 기술적 수단이 아닌, 지역 관계의 패턴을 전환하고 새로운 만남의 구조를 상상·실험하는 데 유의미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1. 감각하기: 타인의 존재에 열리는 접촉의 순간

카니는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는 출발점을 ‘감각(sense)’에서 찾는다.⁸⁾ 여기서 감각은 시각·청각·촉각·미각·후각이라는 오감(sensation)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몸과 정서를 통해 먼저 느끼고 알아차리는 근원적 층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는 생각이나 판단보다 앞선, 몸-정서적 접촉의 차원에서 이미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카니가 강조하는 감각은 ‘촉감(tact)’이다. 그에게 촉감은 피부에 닿는 물리적 자극을 넘어, 타자의 정서와 분위기, 그리고 공간에 흐르는 긴장감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반응을 조율하게 하는 감수성이다. 이 감수성은 나의 단독 감각이 아니라, 타자에게 맞춰 나의 태도와 거리를 조정하는 공동 감각을 뜻한다. 다시 말해 특정 상황에서 타인에게 어느 만큼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터치를 해야 하는지를 신중히 감지하는 일종의 감각적 지혜라 할 수 있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적 연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존재에 감각을 열고 반복적인 접촉과 느낌을 통해 나와 타인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조율해나가는 삶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림의 순간은 악수의 장면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 순간, 만지는 쪽과 만져지는 쪽은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자리를 교차하듯 작동한다. ‘내가 만진다’는 감각은 곧 ‘내가 만져진다’는 감각과 겹치지며, 접

8) 리처드 카니, 『터치, 생명의 감각을 회복하다』, 김연민·김은혜 옮김, 한국문화사, 2025, 23쪽.

9) 같은 책, 24-25쪽.

촉은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상호적인 노출과 응답의 사건이 된다. 이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¹⁰⁾

나아가 카니는 감각을 통한 연결이 단순한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에게 다가가는 방식 자체를 규율하는 윤리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악수처럼 접촉이 상호적인 노출로 이루어지는 순간, 중요한 것은 ‘만짐’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어떤 속도로 타자에게 다가가고 물러서는가이다. 이때 타인의 경계와 리듬을 감지하지 못한 채 느낌 없이 움켜잡거나 음미하지 않고 삼키는 접촉은 타자를 대상화하는 ‘부도덕한 감각’으로 드러난다.¹¹⁾

반대로 기다릴 줄 알고 다양한 감각을 섬세하게 분별하며, 감지된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감각은 타자를 존중하는 ‘도덕적 감각’이다. 결국 카니가 말하는 ‘좋은 감각(좋은 터치)’의 회복은 타인과의 접촉을 폭력이나 침범이 아닌 안전한 상호 조율로 만들며, 반복 가능한 만남과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 형성의 기초 조건이 된다.¹²⁾

2. 실뜨기: 함께 얽히며 만들어지는 과정

카니가 관계의 출발점을 감각적 열림에서 찾는다면, 해러웨이는 그 접면 이후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율되면서 유지·변형되는가에 주목한다. 그녀는 함께-만들기(sympoiesis)라는 개념을 통해 고립된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끊임없이 얽히며 세계를 공동 생산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해러웨이는 함께-만들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실뜨기(string figures)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실뜨기는 한 사람이 실을 건네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 새로운 패턴을 만들며, 그것을 다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집단적 얽힘의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정해진 결과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종종 끊기고, 패턴만들기는 실패하거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엮이기도 한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바로 그 끊김과 어긋남의 틈에서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실천적 기술이 발생한다고 본다.

실뜨기처럼 형성되는 관계는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잠정적인 무늬가 반복되고, 멈추고, 다시 엮히는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무엇을 함께 만들며, 실패와 끊김을 어떻게 다시 엮어 관계를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공동 생산의 문법을 유비적으로 제시한다. 그녀가 보기에 관계 맺음은 단독의 되기(becoming)가 아닌, 함께-되기(becoming-with)이다. 왜냐하면 실뜨기 과정에서 ‘나’와 ‘너’는 고정된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서로 얽혀들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해 가기 때문이다.

결국 해러웨이가 말하는 관계는 이상적으로 좋은 만남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끊김과 실패, 조정과 기다림을 포함한 살아 있는 과정이다. 이는 오치2동 리빙랩에서 관계 형성의 실험이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로 귀결되지 않고, 서로 얽히는 시간과 리듬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¹³⁾

10) 같은 책, 54-58쪽.

11) 같은 책, 61쪽.

12) 같은 책, 50쪽.

13) 같은 책, 28쪽.

3. 판짜기: 관계를 지속하는 구조적 배치

감각과 실뜨기를 통해 관계의 출발과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관계들이 지속하고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아무리 처음 만남의 감각이 열리고 함께하는 활동이 시작되더라도, 사람들이 다시 만날 이유와 경로(시간·장소·역할·규칙)가 생활 속에 마련되지 않으면 관계는 한두 번으로 끝나기 쉽다. 다시 말해 시간표, 공간, 매개자 역할, 느슨한 규칙 같은 관계의 구조적 배치가 없이는 관계는 쉽게 중단되거나 소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판짜기가 필요하다. 판짜기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서로를 받쳐 주도록 배열된 상태를 뜻한다. 이는 단순한 커뮤니티 인프라의 기능 개선이 아니라, 연결 구조의 재설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벤야민이 말한 ‘성좌(Konstellation)’—서로 다른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될 때 의미가 형성되는 관계적 짜임—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판짜기는 별자리의 은유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별자리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별과 별 사이의 간격, 연결의 방식,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미가 형성되는 유동적 구조다. 즉, 하나의 별만으로는 어떤 이미지도 구성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점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의미의 형태를 읽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 역시 고립된 개인의 참여나 개별적인 이벤트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감각적 접촉과 실뜨기의 흐름이 어떻게 배열되고 조율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듬과 패턴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에 따라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성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 즉 ‘판짜기’는 관계들의 단순 합이 아니라, 이러한 감각과 얽힘을 받아내고, 묶고, 구성하는 의미 생성의 방식이다.

카니와 해러웨이의 논의를 함께 놓고 보면, 관계는 감각에서 출발해 얽힘을 통해 이어지며, 결국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배열의 장(場)을 필요로 한다. ‘판짜기’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공간을 빌려주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간의 리듬을 조정하고, 공간을 배치하며, 느슨한 소속감을 허용하는 일련의 구조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이나 제도의 유연성을 설계하는 일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IV. 결론: 지역 관계 회복의 조건과 한계

1. 지역의 취약성을 회복하는 인문적 연결의 가능성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2동을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수행된 리빙랩 실험을 통해, 지역의 관계 약화 현상이 단순한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기 어려운 연결 조건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은 책돌이도서관, 주민자치회,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연구팀이 참여한 기관 네트워크 기반 리빙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조사와 3회에 걸친 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1회의 소규모 현장 실험(작은 축제)을 통해 관계 형성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시험하였다.

리빙랩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층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감각적 접촉의 층위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차 네트워크 회의와 작은 축제와 같이 사람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장이 마련되자,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관 역할이나 관행적 태도를 넘어 서로의 존재와 지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오치2동 지역 안에 여전히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서적 기반과 잠재력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 접촉이 곧바로 관계의 지속성 층위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지역의 맥락을 함께 학습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공통 전제는 형성되었으나, 이것이 짧은 기간 안에 기관 간의 안정적인 협력이나 주민의 반복적 참여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관계 형성이 감각의 문제를 넘어, 반복과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셋째, 지속적인 만남과 실천을 뒷받침할 구조적 배치의 층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만남 이후의 흐름을 조정하고 이어갈 역할 분담, 정기적 리듬, 책임 주체가 구조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은 일회적 사건에 머물렀다. 그 결과 실험 기간 동안 관계가 축적되거나 확장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관찰되었다.

2. 관계를 다시 이해하기: 결과가 아닌 조건으로서의 관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기존의 결과 중심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재고를 제안한다. 기존의 지역 사업이나 공동체 연구에서는 관계를 협력 횟수, 참여 인원, 프로그램 성과와 같은 산출 결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관계의 질, 형성 과정, 시간성과 같은 핵심 요소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리빙랩은 관계를 측정 가능한 성과로 환원하기보다, 특정한 환경과 구조 속에서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질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조건적 접근을 취하였다. 그 결과

관계는 ‘있다/없다’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감각적 접촉-조정의 시간-구조적 배열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생성되는 과정적 현상임이 드러났다.

특히 감각적 접촉 이후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리듬, 머물 수 있는 공간, 조정과 기록을 담당하는 중간주체,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과 같은 인문적·구조적 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관계는 쉽게 소진되거나 단절된다. 이는 향후 마을 사업이나 지역 기관 운영이 관계의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관계가 생성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먼저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연결 실험의 과제와 전망

이번 리빙랩 실험을 통해 확인된 또 하나의 핵심은, 지역 관계 회복이 개인의 의지나 일회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관계는 한 번의 성취로 완결되는 대상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돌보아야 할 ‘살아 있는 조건’의 영역이다. 선언이나 일회성 행사는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킬 수 없다. 접촉 이후 그 흐름을 조정하고 매개할 수 있는 중간 구조(예: 공동의 공간, 인문커뮤니티 리더, 토론과 성찰의 인문실천, 느슨한 협의체 등)가 작동할 때, 관계는 지역 사회의 공공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본 실험은 약 10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관계의 형성과 축적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충분히 추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긴 시간의 리빙랩 운영을 통해, 관계의 리듬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재화되고, 반복적 실천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 실패의 양상과 조건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단지 성공 사례를 쌓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관계의 패턴과 구조를 찾아가는 실험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리처드 카니, 『터치, 생명의 감각을 회복하다』, 김연민·김은혜 옮김, 한국문화사, 2025.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2』,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3.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루리질리언스 사업단
HK3.0 Pluresilience Research Unit, CNU